

“지방선거서 우클릭 노선 한계 드러나”

새정치 초·재선 모임, 중도노선·전략공천 비난

“진보 입지 좁아져 실용 중도 흡수해야” 반론도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6·4지방선거를 ‘사실상의 패배’로 규정하며 김한길·안철수 지도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왔다.

새정치연합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6·4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지방선거 평가 공식 토론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이른바 ‘우클릭’으로 불리는 중도노선 보강을 통해 의원 확보를 꾀해 온 새정치연합 지도부의 전략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한계를 드러냈다고 정면 비판하면서 새로운 당의 진로를 제시, 노선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우상호 의원은 발제

문에서 “진보 교육감과 진보 성향 광역단체장이 대거 당선되고 중도 성향 후보들이 고전한 것을 보면 ‘우클릭’으로 중도 외연을 넓힌다는 전략은 주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새정치연합 지도부가 내세운 중도론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도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 동의해도 그것이 곧 순한 야당, 무기력한 야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배종찬 ‘리서치엔리서치’ 이사는 “한국 사회의 보수화 경향에 맞춰 진보 진영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라며 “정당의 정체성을 중도에 맞춰 혁신적 진보와 실용적 중도를 흡수해야 한다”며 상반된 진단을 내놓았다.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인에 대한 전략공천 등 공천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우 의원은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담론을 중심으로 정치 혁신의 희망을 키우기보다 내부 공천 잡음을 장기화한 것은 대표적 실책”이라며 “공천 잡음 탓에 지도부가 광주에 발목이 잡혀 경합지역 지원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남지역의 무소속 기초단체장 약진 또한 공천 실패사례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안철수 새정치연합이 자기 세력을 밖으로 (공천을) 질질 끌고 있는 것이다. 자기 세력을 밖으로 (기초)선거를 망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외부인사인 조성대 한신대 교수도 “광주에 집중한 것은 내 파벌을 지키겠다는

협소한 캠페인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경제민주화, 복지 등 시대적 가치에 부응하는 혁신적 의제를 제시하지 못한 김·안 체제의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 자리가 의원, 최고위원으로 이야기할 유일한 자리라는 것이 문제”라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평가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라고 개탄한 뒤 “광주의 승리는 광주사람들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결과로 나왔다”며 “강운태 후보가 나온 결과다. 전략공천의 승리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선거 최대 이슈였던 ‘세월호 참사’를 두고도 지도부의 대응이 안이었다는 비판도 나왔다.

우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생명 경시와 관련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했어야 하는데 지도부는 지나치게 ‘몸조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독자적 이슈전(戰), 공중전(戰)에서 중앙당은 무기력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당 찾아 인사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석을 찾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구 “국가 개혁특위 신설”

교섭단체 대표 연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사태의 원인은 ‘국가 시스템의 실패’라며 “대한민국 대변혁을 이뤄내기 위해 국회에 국가개혁특별위원회 설치, 국가 대개

혁을 위한 종합 플랜을 여야가 함께 마련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개혁특위 산하에는 ▲국회개혁위원회 ▲정부개혁위원회 ▲민생개혁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국회개혁위의 역할에 대해 “민생 해결을 가로막는 국회 내 제도를 정비

하고 국회로 인해 발생하는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국회 스스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회개혁위에서 ‘그린 라이트(무쟁점법안 신속처리)’ 도입, 국가원로회의 신설, 법사위 체계지구 심사권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을 논의해 조속히 처리하자고 요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정부개혁위의 역할과 관련해 “이를 통해 판피아 개혁 종합플랜을 마련하겠다”면서 “국회 상임위별로 판피

아들의 규제 약용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 규제 대상자,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국회가 반드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 ‘4대 입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7·14전대 열기 후끈

김무성·서청원 양강구도 속 이인제·김태호 등 출사표

여성 몫 최고위원 놓고 친박 김용동·친이 김희정 경쟁

새누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7월 14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 최고위원을 포함해 5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되며, 이중 한명의 최고위원은 여성 몫이다.

우선 대표직을 놓고 일찌감치 당권 도전 행보를 시작한 김무성 의원과 전남 사실상 출정식을 개최한 서청원 의원의 양강 구도속에 이인제, 홍문종, 김태호, 김영우, 김상민 의원이 잇따라 출마를 선언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의원과 ‘청년 몫’ 최고위원을 노리는 김상민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차례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여권의 차기 ‘잠룡’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김태호 의원은 ‘50대 역할론’을 들고 나왔고, 청년 비례대표 성격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상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1기 실패를 인정하자”며 출사표를 던졌다.

내부적으로는 친박(친박근혜) 진영 후보 교통정리,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

를 둘러싼 여성 의원 간의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다.

주류인 친박 진영에서는 경북이 지역구인 3선의 김태환 의원과 경기도 출신으로 사무총장을 지낸 홍문종의 의원이 모두 출마할지 여부가 관심사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의원은 출마를 기정사실화 한 반면, 김태환 의원은 친박 후보의 난립은 표 분산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다.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는 친박 성향인 김용동 의원이 출마 결심을 굳혔고, 비주류인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는 김희정 의원이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조만간 대진표가 확정되면 후보간 지역별, 계파별로 복잡한 합종연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 지도부 경선은 책임당원 등을 포함해 전체 20만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1인2표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후보 간의 연대 및 짝짓기’가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野, 7·30재보선 공심위 16일부터 가동

새정치, 주말까지 인선 완료 예비 후보자 신청 받아

새정치민주연합이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6일 공천심사위원회(공심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당은 이번 주말 공심위 인선을 마치고 16일부터 공심위 출범과 함께 예비 후보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7·30 재보선 열기에 가려, 세월호 국정조사가 문헌수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공심위 출범과 예비 후보자 신청 등의 일정이 다소 늦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지역 공천을 놓고 손학규, 정동원, 천정배, 김두관 등 의원이 머물고 있는 당내 잠룡들의 이해관계가 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당 지도부는 보다 신중하게 공천 문제에 접근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당 지도부는 수도권 재보궐 선거 공천을 둘러싼 내부 교통정리가 마무리 된 이후,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 재보궐 선거 경선 방법 등을 논의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지역 재보궐 선거 공천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 초에나 이뤄지면서 가장 마지막에 후보가 확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가 재보궐 선거 공천과 관련, ‘경선이 원칙’이라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막판에 가서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략공천에 나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새정치 민주연합 관계자는 “정치적 현실상 이번에도 호남지역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이 가장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당 지도부는 경선을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전략공천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 · 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예향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축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칠만표 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칠만표방수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공전 → 시공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덤핑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산구 381-0061 목포(삼화) 274-5987
서 구 352-7788 목포(건영) 243-7463
남 구 676-7719 순 천 744-8605
북 구 512-7998 여 수 654-7755

(주)칠만공사 / 칠만표방수제
서울 본사 : 02-454-7722
기타지역 080-777-0555